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실험 창작, 확장 발표)
- 회의일시
 - (서류심의) 2023년 3월 23일(목) 14:00~16:00
 - (PT 및 인터뷰 심의) [실험 창작] 2023년 3월 30일(목) 13:00~19:00
[확장 발표] 2023년 3월 31일(금) 9:00~18:00
- 회의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 (Zoom)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술 표현방식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진 현장 인력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차용한 지원팀(지원자)이 많았고,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을 변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서를 준비한 팀들도 상당했습니다. 수용자의 경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 엔진 기반 제작 툴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지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의 발표 방식이 다르고 작업 방식이 구분되는 까닭에 지원신청서를 수평 비교하는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최초 지원신청 건수는 실험 창작 47건, 확장 발표 63건이었습니다. 그중 8건은 '행정심의' 단계에서 사전에 공지한 결격 사유에 의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행정심의'를 거쳐 올라온 102건의 지원신청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의'를 진행했고, 이후 최종 선정 규모 1.5배수를 대상으로 'PT 및 인터뷰 심의'를 실시했습니다. '서류심의'와 'PT 및 인터뷰 심의'는 첫째, 사업 이해도와 계획의 충실성, 둘째, 수행역량, 셋째, 기대효과를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심의 기준별 가중치의 경우 실험 창작 유형은 사업 이해도 및 계획 충실성(30%), 수행역량(30%), 기대효과(40%)로, 확장 발표 유형은 사업 이해도 및 계획 충실성(30%), 수행역량(40%), 기대효과(30%)로 두 유형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매 심의과정은 심의위원의 개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객관화된 점수를 놓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신청 사업 중에는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아이디어를 차별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 활용에 관한 심도있는 아이디어를 찾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한 지원서도 상당했습니다. 일부는 기술 구현 역량에 제약을 받으면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심화시키지 못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기획팀과 실연팀, 예술 인력과 기술 인력 사이의 단순 협업, 물리적 결합에 그친 지원팀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개성적인 예술 활동을 궁리하면서 흥미로운 발상과 특기할 만한 세계관을 보여준 지원팀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 분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실험 창작' 분야는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도전적인 탐구가 돋보였습니다. 기존 예술활동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단순 이동하려는 경우보다 과감한 발상을 보여준 지원서들에서 특징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증된 방식으로 안정적인 결과물에 이르려는 지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용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지원서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술적 시도가 예술적 함의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낸 지원서에는 더 눈길이 갔습니다. 지원서에 흥미 위주의 이벤트를 제안한 경우도 꽤 많았는데, 이는 메타버스를 또 하나의 물리적 시공간으로 단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장 발표' 분야 지원서들은 상대적으로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를 연장·계승·확장하려는 경우 과거의 경험이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지원서는 주제 의식 면에서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시의성있는 담론을 이끌어 내려는 의지가 읽혀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고민되거나, 수행 인력의 운용과 예산 배분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지원서도 여럿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예술활동 경험과 노하우가 더 집적된다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현장 예술가들이 플랫폼, 미디어, 도구적 기술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활용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상상력을 가두는 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메타버스 속성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선택적인 '이주'와 '전환'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기술적 방법론을 순발력있게 흡수하려는 활동 수준을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했던 예술세계의 새 영토를 찾는 노력이 가열차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2023년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